

### 제3강

## 다민족 다문화 제국 청나라의 발상지, 심양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일반적 인식

“만주족(=여진족)은 한인을 지배하면서 동화되어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상실했다”

문제 제기

1644년 입관(入關) 전의 후금/청나라는 이미 여진의 전통을 벗어나서 역대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점차 수용해나가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 이뤄진 여진문화와 漢문화의 융합의 경험은 향후 입관 후 청나라가 만주인, 한인, 몽골인, 티베트인, 위구르인이라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다문화 통치술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제국 경영의 실험으로서 심양 도성 건설을 개관한다.

1. 17세기 초 심양의 부상

① 누르하치의 후금(後金) 건국

1589년 길림(吉林) 지역에 살던 건주여진(建州女眞) 출신의 누르하치는 건주여진 전체를 통일

누르하치를 세력한 명나라는 용호장군(龍虎將軍)이라는 높은 관직을 내림

한편으로는 명나라에 복종하면서 다른 여진족 부족을 계속 통합해나감

1613년 누르하치는 대부분의 여진족을 통합

1616년 건국을 하고 금(金)나라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후금이라 함

② 후금의 주요 도시

누르하치는 명나라와의 전쟁을 진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성(城=도시)을 건설함

대표적인 성으로는 펌아라성, 허투아라성, 자이판성, 사르후성, 동경(東京)성, 심양(瀋陽)성

펌아라성은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과정에서 여진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적 중심지 역할

허투아라성은 여진부락의 통일과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거점이면서 후금을 건국한 곳

사르후와 자이판성은 누르하치가 명나라 정복전쟁을 선언하고 군사적 교두보로서 건설

동경성은 명나라 조선 여진 연합군과 후금 사이에 벌어진 사르후 전투(1619년)에서 후금이 대승한 이후 요동(遼東) 통치를 위해서 요양(遼陽)으로 천도하면서 새로 지은 곳

### ③ 심양 천도(遷都)

동경성 축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1625년 누르하치는 심양으로의 천도를 주장

누르하치가 주장한 천도의 이유

사통팔달의 요충지

서로 명을 정벌하려면 요하(遼河)를 건너면 바로

북으로 몽고를 정벌하려면 이삼일이면 도달

남으로 조선을 정벌하려고 해도 진격이 수월

심양을 관통하는 혼하(渾河)의 발원지 부근 삼림에서 벌채도 용이

누르하치는 심양이 가진 군사전략적 측면, 경제교통상의 장점을 간파

## 2. 후금의 수도 심양

### ① 홍타이지의 등장

1626년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여덟 번 째 아들 홍타이지(皇太極)가 즉위

홍타이지는 외몽골과 내몽골을 공격하여 통합하는 한편 만주족 내부의 정치세력을 통합

내부적으로는 만주족과 한인(漢人)의 관계를 개선하는 민족 융합정책을 펼침

1635년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皇帝)가 됨

### ② 민족 융합정책과 심양 도성(都城) 건설

홍타이지는 기존의 민족차별정책을 버리고 한문화(漢文化)를 적극 수용하고 인재 발탁

중국 역대 왕조의 도성건축의 방법과, 관습 및 경험을 적극 흡수

한인(漢人) 건축기술자들을 등용하여 도성의 설계와 시공을 맡김

명대에 수축된 심양성곽을 기초로 궁성을 확대

청조체제로 전환 이후 역대 한족 왕조의 도성 제도를 수용하여 심양의 황궁과 부속시설의 배치와 건설을 완성

명칭도 심양에서 성경(盛京)으로 바꿈

### ③ 한인의 도성건축문화 흡수

홍타이지는 역대 중국의 도성제를 활용하면서도 만주 전통적 도성문화를 유지

한인 출신의 도시설계가의 도움을 받아 누르하치 시기의 건축과 새로운 황궁을 조화시킴

井자형의 중심구역에 공간을 확정하고 황궁을 동서로 관통하는 심양로(瀋陽路)를 축으로 해서 서쪽의 회원문(懷遠門)과 동쪽의 무근문(撫近門)을 설치

황궁의 북측에 고루(鼓樓)와 종루(鐘樓)를 설치하고 심양로와 평행하면서 고루와 종루를 관통하는 중가로(中街路)를 개설하여 궁궐의 북측 경계로 삼음

황궁 남측의 조양가(朝陽街)와 정양가(正陽街)의 가로변에 육부(六部)와 도찰원(都察院)과 이번원(理藩院) 등의 관청을 설치

심양로는 궁(宮)과 성(城)을 연결하는 주축 도로로써 황제의 집무와 주거공간을 대신들의 업무공간과 분리시키는 기능

중가로는 상업기능이 집중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덕승문(德勝門=대남문) 밖 남쪽에 천단(天壇)을, 소동문(小東門) 동쪽에 지단(地壇)을 세우고 무근문 동쪽에 태묘(太廟)를 축조

이러한 심양 도성의 공간구조는 “전조후시(前朝後市),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전형적인 중국 고대도성의 원칙을 따른 것

전조후시

황제가 근무하며 정무를 처리하는 장소인 조는 황궁의 앞쪽에 위치  
상품생산과 교역이 이뤄지는 시장은 궁궐의 뒤쪽에 위치

좌조우사

조상의 신위를 모신 곳은 황궁의 왼쪽에 위치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은 황궁의 오른쪽에 위치

명나라 영락제가 세운 북경의 천단(天壇) 지단(地壇) 일단(日壇) 월단(月壇)

홍타이지는 몽골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라마사원인 실승사(實勝寺)를 축조

### 3. 심양 도성 건설과정의 특징

① 지리적 조건을 활용한 도성 건설에서 계획적 도성건설로 변화  
여진 초기의 피아라성 허투아라성 등의 초기 도성은 자연지형을 활용한 것

하지만 홍타이지 시기 이후 漢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심양 도성건설은 중국 고대의 도성제에

기초한 계획적 도성건설로 바뀐(정자형 구조, 전조후시, 전조후침, 좌묘우사 등)

② 한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여진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

지형에서 고저(高低)를 중시하는 여진의 전통을 반영하여 심양성은 궁고전저(宮高殿低)가 기본으로 홍타이지 시기 인공대지 위에 축조된 청녕궁(淸寧宮)이 대표적

북경성의 궁저전고(宮低殿高)와 확연히 구별됨

③ 도성구조가 실용성 강조에서 권위와 위엄 강조로 변화

누르하치 시기는 실용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침궁(寢宮)과 정전(正殿)을 축조

청조체제로 전환한 홍타이지 시기 황궁을 정자형 구조의 중심에 배치한 점, 대칭적 구조 등 황제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는 도성 구조로 변화

참고자료

유지원, ‘邊城’에서 ‘都城’으로: 後金과 淸朝體制 下の 瀋陽, 동양사학 연구 제105집, 2008